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I)

성명 수험 번호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학생: 선생님! 연꽃이 참 운치 있어 보이네요.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

교사: 이건 표암 강세황의 작품이에요. 예로부터 연꽃을 '군자의 꽃'이라고 했어요.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,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으며,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점이 군자와 닮았기 때문이죠. 이 그림은 연꽃의 이러한 점을 잘 표현했는데, "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다."라는 구절을 따서 제목을 '香遠(㉠)清'이라고 했습니다.

- ① 淨 ② 快 ③ 益 ④ 散 ⑤ 飛

2. 두 자를 <보기>와 같이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만들 때, ㉠과 ㉡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<보 기>
困 + 心 = (恩)

○ 莫 + 土 = (㉠) ○ 非 + 車 = (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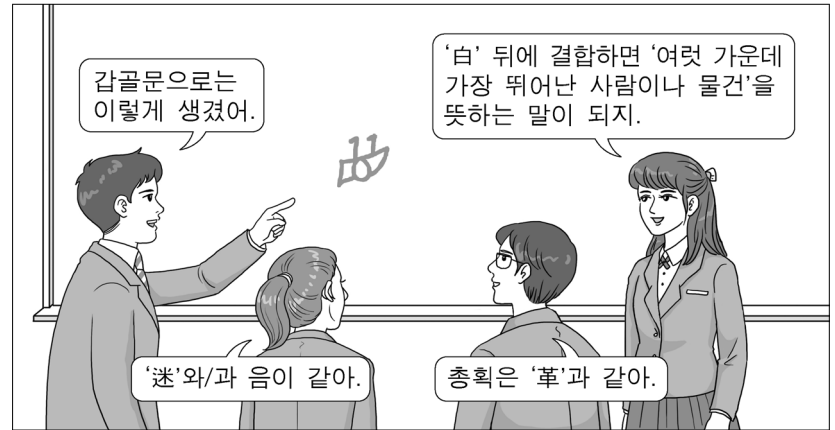
- | | | |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| ㉡ | ㉠ | ㉡ |
| ① 막 | 배 | ② 묘 | 배 |
| ③ 막 | 비 | ④ 묘 | 비 |
| ⑤ 막 | 차 | | |

3.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보 기>
ㄱ. 表 - 裏 ㄴ. 慶 - 賀
ㄷ. 崩 - 壞 ㄹ. 昇 - 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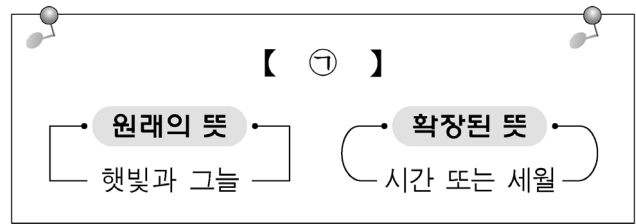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④ ㄴ, ㄹ ⑤ ㄷ, ㄹ

4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尾 ② 首 ③ 面 ④ 美 ⑤ 眉

5.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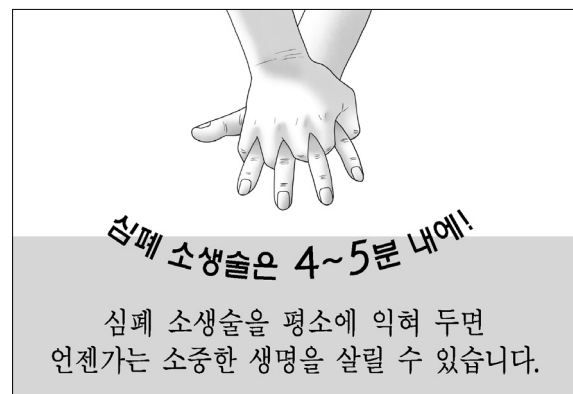
- ① 寸刻 ② 明暗 ③ 晝夜 ④ 光陰 ⑤ 歲時

6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가는 한자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은? [1점]

【가로 열쇠】
어찌할 도리가 없어 꿈쩍 못함.
【세로 열쇠】
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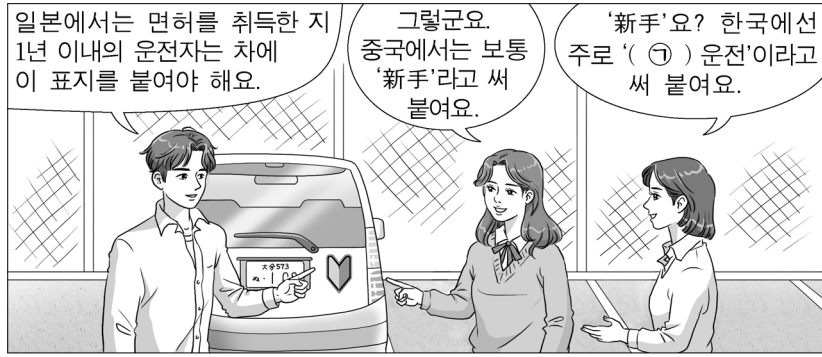
- ① 禾 ② 本 ③ 休 ④ 忠 ⑤ 林

7. 광고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

- ① 發憤忘食 ② 隱忍自重
③ 捨生取義 ④ 望雲之情
⑤ 有備無患

8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해당하는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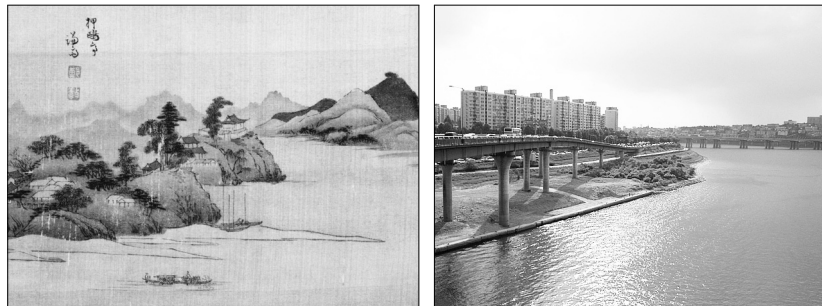
- ① 試驗 ② 初步 ③ 徐行 ④ 安全 ⑤ 模範

9. 대화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 [1점]

평공(平公): 남양 고을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좋겠소?
 기해(祁奚): 해호(解狐)가 좋겠습니다.
 평공: 해호는 그대와 원수지간이 아니오?
 기해: 공께서는 누가 다스릴 사람으로 적합하냐고 물으셨지 저의 원수를 묻지 않으셨습니다.
 -『여씨춘추』-

- ① 滅私奉公 ② 易地思之 ③ 不問曲直
- ④ 立身揚名 ⑤ 東問西答

10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교사: 왼쪽은 겸재 정선이 그린 '압구정'의 정경이고,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에요. 참 많이 변했죠?
 학생: 같은 곳이라는 게 전혀 상상이 안 가요. 그야말로 (㉠)(이)라는 성어가 떠오르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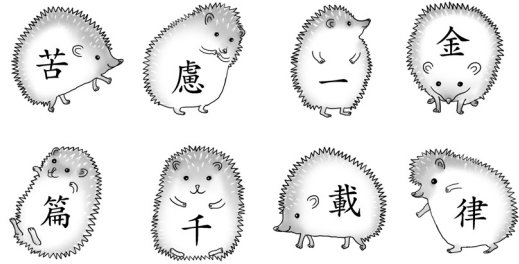
- ① 沙上樓閣 ② 桑田碧海 ③ 百年河清
- ④ 愚公移山 ⑤ 錦上添花

11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德不孤, 必有鄰. ② 木難上, 不可仰.
- ③ 不經一事, 不長一智. ④ 行百里者, 半於九十.
- ⑤ 衆人重利, 廉士重名.

12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글씨가 매우 훌륭하군.
- ② 어찌면 이렇게 한결같이 비슷하니.
- ③ 이렇게 좋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.
- ④ 위험한 고비를 셀 수 없이 겪어 왔어.
- ⑤ 수없이 따져 봤는데도 결국 실수하고 말았어.

13.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?

以言教者訟, 以身教者從.
 -『승정원일기』-

- ① 包容 ② 協同 ③ 公正 ④ 率先 ⑤ 盲從

1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大韓國, 在亞細亞之東, 北連大陸, 東西南, (㉠)以洋海, 故謂半島國.
 -『몽학한문초계』-

- ① 淺 ② 換 ③ 産 ④ 壤 ⑤ 環

15.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시구로 알맞은 것은?

S#12. 용궁 앞
 자라는 등에 찰싹 붙어 있던 토끼를 내려놓는다.



자라: 여보게! 여기가 남해 용궁이라네.
 토끼: (사방을 살펴보며) 이보게, 자라! 오색구름 속에 진주며 자개로 만든 궁궐이 우뚝하고, 산호 기둥에 백옥 난간을 순금으로 꾸며 놓은 것이 과연 자네에게 듣던 대로 (㉠)(이)구먼. 구경 좀 시켜 주게나!
 자라: 잠시 기다리시게. 내 들어가 용왕님께 보고하리다.

- ① 白雲飛下暮山青 ② 秋陰漠漠四山空
- ③ 別有天地非人間 ④ 落花時節又逢君
- ⑤ 長夏江村事事幽

16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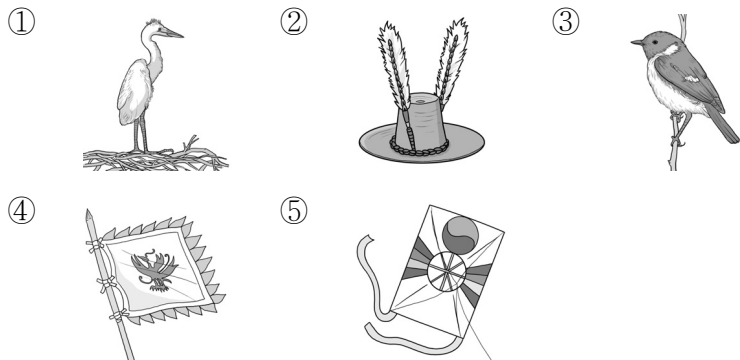


학생: 달빛이 은은한 밤에 까치가 날아오르고 있는데, 무엇을 표현한 거죠?
 교사: 그건 왼쪽에 '幾度能尋織女橋'라고 쓰여 있는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예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와 관계가 있답니다.
 학생: 아, (㉠)와/과 관계된 전설을 묘사한 작품이군요!

- ① 七夕 ② 元旦 ③ 仲秋 ④ 冬至 ⑤ 端午

17.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?

數條竹爲骨，一片紙作毛。非是飽則去，引風上雲霄。
 * 霄(소): 하늘 - 『청장관전서』-



[18~19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公主對曰：“大王常語，汝必爲溫達之婦，今何故，改㉠前言乎？匹夫猶不欲食言，況至尊乎？故曰‘王者無戲言’。今大王之命，謬矣。妾不敢祇承。”
 * 謬(류): 그릇되다 * 祇(지): 공경하다
 - 『삼국사기』-

18. ㉠과 짜임이 같은 것은?

- ① 上陸 ② 生辰 ③ 日沒 ④ 祭祀 ⑤ 榮辱

19. 윗글의 주제와 관계있는 것은?

- ① 信義 ② 禮節 ③ 友愛 ④ 忍耐 ⑤ 儉素

[20~21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明君，制民之產，必使仰足以事父母，俯足以㉠畜妻子，樂歲，終身飽，凶年，免於死亡，然後，㉡驅而之善。故，民之從之也㉢輕。
 * 俯(부): 숙이다 - 『맹자』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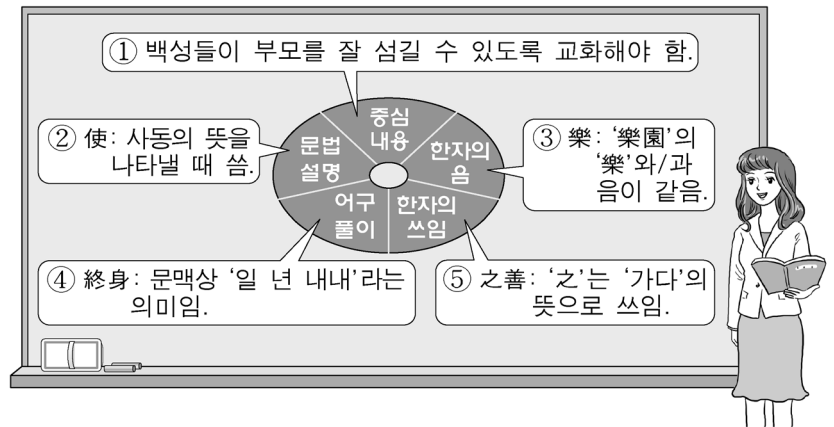
20. ㉠~㉢의 의미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㉠: 부양하다 ㉡: 유도하다 ㉢: 쉽다

- ① ㉠ ② ㉡ ③ ㉠, ㉢
- ④ ㉡, ㉢ ⑤ ㉠, ㉡, ㉢

21.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?



[22~2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古之學者，必有師。師者，所以傳道授業解惑也。人非生而知之者，㉠孰能無惑？惑而不從師，其爲惑也，終不解矣。生乎吾前，其聞道也，固先乎吾，吾從而師之，生乎吾後，其聞道也，亦先乎吾，吾從而師之。吾師道也，(㉡)是故，無貴無賤，無長無少，道之所存，師之所存也。
 - 『한창려집』-

22. ㉠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의혹이 있게 마련이다.
- ② 배워야 의혹이 없어진다.
- ③ 의혹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.
- ④ 의혹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.
- ⑤ 의혹을 품어야 배울 수 있다.

23.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㉡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배움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.
- ② 남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.
- ③ 스승의 말이라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.
- ④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.
- 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르쳐야 한다.

[24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人之患，在常知我過於人，而不知不及於人，常欲上[㉠]於人，而不欲下於人，[㉡]常好我教人，而不好我問於人，所以學聖賢而不至也。

- 『의암집』 -

24. ㉠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?

- ① 良藥苦於口. ② 霜葉紅於二月花.
- ③ 一年之計，在於春. ④ 天下大事，必作於細.
- ⑤ 己所不欲，勿施於人.

25. ㉡과 의미가 통하는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人之患，在好爲人師.
 ㄴ. 不能舍己從人，學者之大病.
 ㄷ. 古之學者，爲己，今之學者，爲人.
 ㄹ. 今之衆人，其下聖人也，亦遠矣，而恥學於師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昔，黃相國喜，微時行役，憩于路上，見田父駕二牛耕者，[㉠]問曰：“二牛，何者爲勝？”田父不對，輟耕而至，附耳細語曰：“此牛勝。”[㉡]公怪之曰：“何以附耳相語？”田父曰：“雖畜物，其心與人同也。此勝則彼劣。”公大悟，遂不復言人長短云。[㉢]

* 憩(계): 쉬다 * 駕(가): 부리다 * 輟(철): 그치다
 - 『지봉유설』 -

26. 글의 흐름으로 보아 <보기>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?

<보 기>

使牛聞之，寧無不平之心乎？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27.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?

- ① 모르는 것을 안다고 강변하는 사람
- ②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
- ③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
- ④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사람
- 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江碧鳥逾白， 山青花欲[㉠]然。
 今春看又[㉡]過， 何日是[㉢]歸年。

* 逾(유): 더욱
 - 두보, 『絕句』 -

(나) 雪色白於紙， ④[㉣]舉鞭書姓字。
 ②[㉤]莫教風掃地， 好[㉥]待主人至。

* 鞭(편): 채찍
 - 이규보, 『雪中訪友人不遇』 -

28. ㉠~㉥의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은 ‘불타다’라는 의미이다.
- ② ㉡은 ‘過誤’의 ‘過’와 뜻이 같다.
- ③ ㉢의 주체는 시적 화자이다.
- ④ ㉤은 ‘勿’과 뜻이 통한다.
- ⑤ ㉥의 음은 ‘帶’와 같다.

29. 시적 화자가 ㉣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자연과 동화되고 싶어서
- ② 주인이 만나 주지 않아서
- ③ 자신이 다녀간 것을 알리고 싶어서
- ④ 말을 재촉하여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
- ⑤ 친구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해서

30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(가)에는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.
 ㄴ. (가)는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시름을 끌어내고 있다.
 ㄷ. (나)의 첫째 구는 ‘雪色/白於紙’로 띄어 읽는다.
 ㄹ. (나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ㄹ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ㄷ, ㄹ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